

전주·완주 상생발전 무산 완주군민 강력대응 목소리

전주시의회 상생사업 조례안 일방적 개정추진 반발

전주·완주통합 추진 당시 전주시가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상생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가운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완주군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완주군민의 공설 화장장 사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한 전주 시내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를 전주시 거주 60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하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진된다.

통합 상생사업 조례안 9개 ▲완주·전주 상생발전전을 위한 민간 활동 지

원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정조례 ▲전주시 농어업·농어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제정지원 조례안중 3개가 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완주군민들은 전주시의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산 김 모(50)씨는 "통합과정으로 인해 완주군민들을 마음속으로 돌리

시켰던 전주시의회가 치유도 되질 않나 몰라라하는 태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봉동 이모(44)씨는 "상생을 외치던 전주시의회가 완주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한치 앞을 보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바라보는 격이다"며 "완주군도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장은 "전주시의회와 협의의 중"이라며 "단약 전주시의회가 끝까지 서로의 상생발전 합의를 무시한다면 완주군의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으로 모약산주차장 요금부과 등 여러 방안을 찾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마을 대표 음식 찾는다

품평회 개최·조리법 교육

무주군이 "마을로 가는 축제"를 진행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음식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무주읍 농·특산물 명품화교육장에서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한국음식문화협회의 유유순 강사,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마을별 대표음식 작은 품평회가 개최됐다.

이날 품평회는 조리법 및 상차림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겸한 자리였으며 마을별 대표(상품과 희망음식)음식을 선정해 특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평가를 받았다.

이날 품평회에는 무주읍 전도, 가림, 서면마을과 무풍면 승지 마을 등 4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어족과 야채비빔밥, 속·팔 칼국수, 오이냉국, 표고전, 잔치국수, 순두부, 순두부찌개, 두부수육을 만들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재배하는 주요 농·특산물을 활용해 우리 마을에 서민 맛볼 수 있는 특화음식을 만들어나가는 자긍심이 생겼다"며 "마을 축제를 즐기기 위해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맛보여드리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마을로 가는 축제" 대상 마을 음식교육은 오는 11월 10일 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리스

장수군, 기관·단체장 간담회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지난 9일 장수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 윤중섭 장수경찰서장 등 주요기관장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현안사업과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등, 최용득 군수와 지역의 기관단체장들과의 균형 발전을 위한 만남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제10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장수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운영, 6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장수카야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군이 추진하는 굵직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 현안사업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식품안전교육

진안군은 10일 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종업원, 학교급식소,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 관리자와 종사자에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예방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식중독 발생 사례 중심으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적정 관리, 위생등급제, 삼삼급식소 실천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강화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과 방법에 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심재기팀장님이 알기 쉽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위식업집진안군지부조합원 200여 명에게 매출노트를 제작 배부하여, 진안군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도 고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위생등급제 참여를 당부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고 업소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진안군을 만들자"며 "청정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급식소나 식당에서 더 많이 사용돼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완주군은 지난 10일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관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원시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폭행 및 인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잇따른 사건이 발생된 상황에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북도립장애인복지관 오준규 권익사례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단순한 주입식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종사자 자신 안의 인권적 관점을 심도 있게 되짚어보며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서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 성황

(장거리 자전거 마라톤)

1700여 명 참가 무주·영동·김천 일주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체육회와 네오플라이가 주관한 제5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가 12일 무주와 영동군, 김천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는 장거리 자전거 마라톤으로 올해는 1,700여 명이 그란폰도(136km - 총 라이딩 7시간 30분 예상)와 메디오폰도(70km - 코스 완주방식) 종목에 참가했다.

그란폰도에 참가한 1,150명의 선수들은 오전 7시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을 출발해 영동군 용화면과 상촌면을 지나 김천시 부항면과 무풍면과 실천면을 거쳐 적상산(산정호수) 정상까지 달렸으며, 메디오폰도에 참가한 선수들은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을 출발해 실천면 진평마을과 무풍면 원평삼거리, 실천면 차마재를 지나 적상산(산정호수) 정상에 도착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메디오폰도에 참가했던 김 모씨(46세, 대전)는 "그란폰도 피나렐로가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꼭

한 번 참가해봐야 할 대회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훈련을 위해 지난주부터 무주를 오가며 연습도 했고 무엇보다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는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화합 무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해마다 참가 동호인들의 수가 증가해 명성 있는 대회로서 기반을 잡아가고 있으며 "부자 되는 군민"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소득 창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제1회 대회에는 280명, 2회 900명, 3회 1,500명, 4회 때는 1,600명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원활한 대회진행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경찰, 공무원 등 250여 명의 주민들이 운영 및 안전 요원으로 활약해 눈길을 끌었다.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제5회 무주 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가 12일 무주·영동군, 김천시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힘찬 페달을 밟고 있다.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의 의미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에서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으며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분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경찰, CCTV 고도화 시스템교육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0일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과, 여성청소년계, 보안기능 등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CCTV 고도화 시스템 교육 및 스마트 위치 사용방법 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은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약자와 여성상대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CCTV 고도화 추진방안 설명 및 스마트 위치

를 활용한 신변보호교육, FTX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무주서는 범죄피해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범죄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위치 지급, CCTV를 활용한 피해자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경제지원,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업과
063-430-2951